

이에 1974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조직병리학적으로 구강내 설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아 연세 암센타,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한 56예 중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53예를 대상으로, ① 병기에 따른 국소퇴치율 및 생존율, ② 치료방법(수술요법 병용여부)에 따른 국소퇴치율 및 생존율, ③ 방사선 조사방법(자입요법 병용여부)에 따른 국소퇴치율 및 생존율 : 여러 여건으로 인해 수예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예에서 외부조사 단독치료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문헌과의 비교가 필요함. ④ 그에 따른 재발양상 등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연구를 진행하였다.

18) 하인두 (Hypopharynx) 암의 방사선 치료성적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 · 연세 암센터*.
이비인후과**

이창걸 · 유삼열 · 조관호 · 서창옥 · 김기언
노준규 · 김주항* · 김병수* · 이원상**
김광문** · 홍원표**

하인두암은 이상와 (pyriform sinus), 후인두벽 (posterior pharyngeal wall), 후윤상부 (postcricoid region) 등, 발생부위에 따라 임상적 특징, 전이양식 그리고 예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인두암의 대부분은 이상와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진단 당시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경부 임파절 전이 빈도가 높고, 조직학적으로 분화도가 좋지 않아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다. 따라서 치료 성적도 주위 조직과의 침윤이 없고, 발병 부위에만 국한된 T₁ 병소는 발성 기능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부분적 절제술만으로도 85~90%의 높은 국소 치유율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T₂ 이상의 병기에서는 단독 치료만으로는 성적이 불량하므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의 병합치료로 치유율을 높히고, 최근에는 유도 항암요법의 도입으로 치유율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하인두암의 치료는 주로 방사선 치

료에 의존해 온 경향이어서 이에 저자들은 1974년 1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연세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하인두암 환자 50예를 대상으로 후향성 분석을 통해 임상적 고찰, 각 병기에 따른 국소제어율, 생존율, 재발율 등을 고찰, 향후 치료지침을 마련코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19) 두경부암의 온열치료

(국소적으로 진행 혹은 재발된 두경부암의 8MHz 라디오파를 이용한 온열요법의 치료성적
중간 보고)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 · 연세암센터*.
이비인후과** · 외과***

박경란 · 김수곤 · 이창걸 · 조관호 · 성진실
서창옥 · 김귀언 · 노준규 · 김병수*
홍원표** · 박정수*** · 민진식***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암의 조기병기 (stage I & II)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단독 혹은 병용했을 때 양호한 치료경과를 보이고 있지만, 진행된 병기 (stage III & IV)에서는 아직도 완치율이 40~50% 미만으로 치료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수술과 근치적 방사선 치료후 재발된 두경부암 환자에서는 salvage therapy의 치료성적이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후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진행된 병소나 근치치료후 국소적으로 재발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암치료에 저자들은 국소적인 온열요법을 시도하여 치료결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온열요법이란 열 (heat)을 이용한 암치료의 한 방법으로, 1900년대초 이래로 산발적으로 암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고무적인 치료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열요법을 단독 혹은 방사선 및 약물치료와의 병용요법 (combined modality)으로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온열 치료기의 가열방법의 과학적 개발과 세포배양 및 생체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임상 치료결과가 보고되면서 암치료에 대한 온열요법의 가능성을 인정, 체

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기초연구 결과, 열은 직접적인 세포독성작용이 있고 온열요법이 방사선, 방사선감작물질 및 항암제의 세포독성 효과를 상당히 증강시킨다는 생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병용요법적 접근(combined modality approach)이 온열요법의 임상적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고 현재까지 암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 방사선 치료 및 약물요법과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경부암은 비교적 표재성 병소로 전신적 합병증 없이 국소 가열방법으로 온도 상승이 용이하고 초기 단계의 임상결과에서는 온열요법 단독보다는 방사선치료 및 약물요법과 병용하였을 때 특히 의의있는 치료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저자들은 1985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두경부의 진행성암 및 재발된 암에서 다른 치료방법으로 완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환자중에서 8MHZ 라디오파 온열치료기를 이용, 온열요법을 시행하였던 21예를 대상으로 관해율을 중심으로한 치료성적 분석과 합병증 및 임상적응 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온열요법을 이용한 두경부암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그 중간성격을 보고 하고자 한다.

20) 악성중앙선세망증의 방사선학적 고찰 : 전산화단층촬영소견과 임상소견 및 예후에 대한 비교

연세의대 방사선과

김동익 · 이종두 · 서정호 · 김귀언

악성중앙선세망증은 상기도, 인후부 및 안면부에 지속적인 염증성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중의 일환으로 그 임상증상은 Wegener's granulomatosis, sarcoidosis 혹은 lymphoma와 유사하나 조직병리학적 상이점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병리소견과 임상적 진행 또한 다양하여 국소적 염증과 괴사를 일으키는 전형적 형태와 임파증식세포의 침윤과 혈관침윤을 초래하여 전신적인 파급도 초래하는 polymorphic reticulosis의

형태로 분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extranodal lymphoma와 유사한 소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병변을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 특징적 소견이나 상기 기술한 유사한 질환과의 감별점 및 임상적 진행형태에 따른 상이점등에 대한 논문보고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동안 연세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리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악성 중앙선세망증환자중 전산화단층촬영을 포함한 방사선학적 검사가 시행되었던 15예를 대상으로 그 소견을 분석하고 방사선치료후 반응 및 추적에 의한 임상적 진행과정과 비교하여 의의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1) 방사선 장애 측정을 위한 타액선 기능 검사의 기초 시도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 · 연세암센터*.

이비인후과**

경북의대 이비인후과***

김귀언 · 장정웅*. 홍원표 **· 노준규

김병수*. 서장수 ***

두경부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방사선치료의 효과나 역할은 새삼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 방사선치료 이후 유발되는 합병증 중 구강고갈(xerostomia) 문제는 환자와 의사를 괴롭히는 피할수 없는 후유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본 저자들은 이와 같은 구강고갈의 문제점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동물실험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해 손상되는 타액선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이미 규명한 바 있고, 타 저자들의 의견과 일치되는 견해를 보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방사선으로 인해 유발되는 손상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저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과제로 생각되었으며, 그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적절한 진단법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